

# 책으로 익히는 CD롬의 새로운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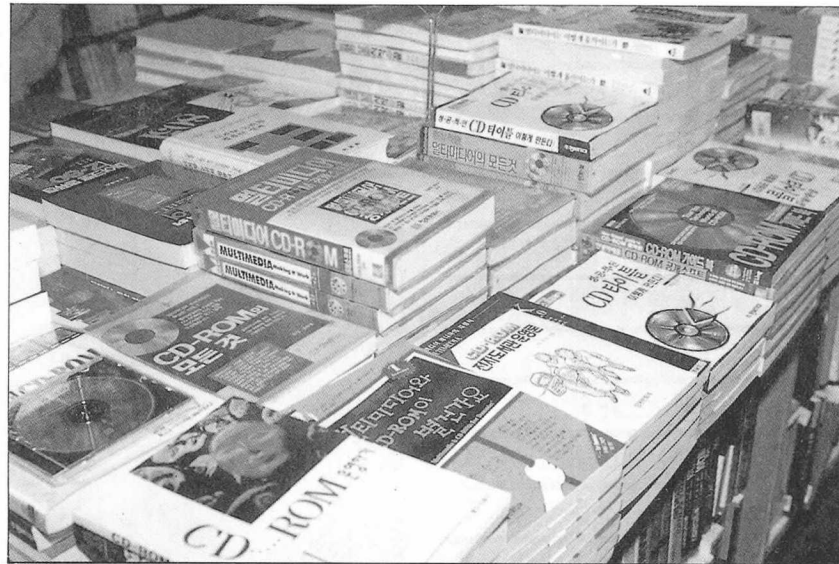
원리와 활용방안, 제작지침 등 다양... 정보 다룬 잡지도 선봬

멀티미디어 PC를 갖춘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매체로서 대용량과 빠른 처리속도를 가진 CD롬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매체다. '별의별 것이 다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개발되는 CD롬 타이틀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구동시켜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우선 CD롬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작동 원리는 어떤 것인가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숙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각종 활용 안내서를 다양하게 출간

CD롬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듯 서점에서 CD롬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CD롬의 원리부터 드라이브의 설치, 나아가 타이틀 제작과 활용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CD-ROM 드라이브》(권준형 지음, 정



서점에 나와 있는 CD롬 관련서들.

서점에 나와 있는 CD롬 관련서들. (보시대사)는 CD롬의 역사부터 CD롬의 하드웨어적인 특징 및 여러 규격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내 상황과 자신에 맞는 CD롬 드라이브의 선택 및 설치

요령까지 다루고 있다. 아울러 CD롬 타이틀의 활용방안과 사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 CD롬 드라이브의 유지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CD-ROM》(강준구 지음, 동신출판사)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및 개념과 구성에 대해 서술, 사용자가 편리하게 CD롬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CD롬 개발사 및 판매회사들과 CD롬 인스톨 방법을 수록.

《CD-ROM의 모든 것》(심우형 지음, 정보문화사) 역시 CD롬의 개념부터 드라이브의 설치 및 문제해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CD타이틀 이렇게 만든다》(홍진표 지음, 정보시대사)는 CD롬 타이틀 제작 지침서라는 데 특징이 있다. 멀티미디어와 타이틀의 개념, 성공적인 CD타이틀 제작의 실제, 상품화 전략, 특히 제작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획부분 등 CD롬 타이틀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300여장이 넘는 그림과 함께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CD-ROM 가이드 북》(Dana Parker 외 지음, PC라인 편집부 옮김, 한경PC라인)은 'CD롬 드라이브 설치에서 CD롬 타이틀 제작까지'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CD롬 드라이브의 하드웨어적인 기초부터 타이틀 제작방법, CD롬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공학에 대한 학위 없이도 CD롬 테크놀러지를 이해할 수 있게 기술된 책이다. 《CD-ROM 드라이브를 달자》(Robert

Mallen 지음, 노정희 외 옮김, 지산사) 역시 CD롬 드라이브의 선택과 설치, 사용법을 설명한 책으로 부록에 사용자의 요구와 관심분야에 알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시산표와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멀티미디어와 CD-ROM이 별건가요》(Andy Rathbon 지음, 홍익미디어 C & I Division 옮김)는 자신의 PC를 혼자 힘으로 멀티미디어 PC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CD롬 드라이브,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윈도우즈를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게 셋업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멀티미디어의 여러가지 부품구입 요령과 설치, 실행 방법 및 관련 용어들을 설명한다.

## 번역서 위주, 용어 통일 등 과제

한편 국내 CD롬 정보를 다룬 전문잡지도 창간돼 눈길을 끈다. 《월간 CD-ROM 뉴스》로 음반 및 CD롬 타이틀 제작업체인 신라음반에서 지난 8월 25일 창간했다. CD롬 타이틀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한편 제작업체들의 현장소식과 멀티미디어 뉴스 등을 담는다.

CD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책들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도 높다. 그러나 현재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은 대체로 개론서에 머물고 있고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자들과의 각기 다른 수준이나 궁급증을 골고루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미디어 채근식 과장은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이 번역서 또는 편역서가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고 CD롬의 개념소개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직 CD롬이 도입되는 시기이고 전문 필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CD롬 관련서들이 실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용어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해 국내 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두루 다룬 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매너를 위한 전문가용 등 그 용도와 수준의 세분화도 과제다. — 박남정 기자

## CD롬잡지

# '보고 읽고 듣는' CD롬 정보지들

《X-people》 《클릭》 《사이버타임즈》

단순히 책장을 넘기며 보는 잡지의 개념을 파괴,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동화상으로 보고, 활자로 읽고, 소리로 들으며 그야말로 정보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전자잡지가 올 초부터 속속 창간되고 있다.

(주)이래미디어가 《네오마인드》에 이어 9월 말에 창간한 《X-PEOPLE》은 X세대의 문화와 생활을 전문적으로 다룬 CD매거진이다. 전체 메뉴를 5개의 섹션 메뉴로 분리하고 주요기사 14종을 서브메뉴로 구성, 카드 열람식의 메뉴 인터페이스 체제로 꾸며 사용자가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쪽에 개발의 포커스를 맞췄다. CD롬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9900원. (834-4141)

올 3월에 창간, 통권 4호를 발간한 격월간지 《클릭》(전자신문사)은 영상세대인 신세대를 독자층으로 하여 문화·연예계 소식을 담은 '레드' 타이틀과 컴퓨터 관련정보를 담은 '블루' 등 타이틀 2장으로 구성. 가격은 15,000원(636-5340)



지난 4월에 제1호를 간행한 이래 현재 6호까지 발행된 《월간 사이버타임즈》(CIDI)는 신세대 감각의 문화, 영상, 연예, 스포츠, 패션,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사이버타임즈》와 정보산업 관련기사들을 중심으로 뉴미디어, 뉴테크놀러지 등을 현장취재와 광범위한 정보와 함께 소개하는 《컴퓨터타임즈》 등 2장의 타이틀. 가격은 9700원. (556-0530)